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Case Study for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Adjustment to Korea

채옥희** · 홍달아기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 전공

Cahe,ock-hi** · Hong,Dal-Ah-Gi
Dept. of Family Child Welfare, Won 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their process to wedding for Vietnamese brides and the motives of their marriage of whom are living in rural areas near an urban city, and the difficulties of their living in Korea

The most significant motive of their marriage for the Vietnamese brides is financial reasons. They also think that Korean men are well-off and reliable and that the men's occupations or the age are any matter to be considered. As for the Korean men married to Vietnamese brides, the most significant motive of their marriage is that Vietnamese brides are considered to be good-natured hardworking, sincere and respectful of the elderly.

The wedding process usually takes place in 5-6 days through matchmaking, and the background of their Korean man gets inflated by their matchmaking agency.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difficulties for their life in Korea are due to the language barrier, their husbands' incompetence for a living, conceptions before the young brides get adjusted to Korean living

Most significant support networks are their husbands/families, and their neighbors, relatives and friends that can share Korean cultures and Vietnamese cultures with them.

At last, the local communities should continuously offer them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Korean language and social/cultural understanding.

Key Words : marriage based immigrants, international marriage, vietnamese brides

I.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베트남과 한국이 국교가 재개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급격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의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로 증가하면서 현재 농촌총각의 초혼에 국한되지 않고 재혼을 비롯한 도시거주 일반인들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은 일부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과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자 선택 전략으로서 결혼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제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한국염, 2004).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의 현실은 교제를 통하여 상호애정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짧은 교제기간과 서로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중매혼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처럼 중매 결혼한 국제결혼부부가 배우자의 문화적인 관습, 가치관, 언어, 가족적 배경 등 생활방식에 대하여 서로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소지로 작용한다. 특히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은 대부분 결혼중매회사를 통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이 한 두 차례의 만남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주여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내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재규, 이윤애, 2005).

한편 우리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타 문화에

* 본 연구는 2006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ock-hi Chae
Tel: 063) 850-6654, fax: 063) 850-6047
E-mail: chae@wonkwang.ac.kr

대한 몰이해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 남편이나 가족원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다. 특히 베트남신부들은 자아 존중감이나 사회적응력이 낮으므로 한국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채옥희, 홍달아기, 2006).

이처럼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많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적인 갈등과 외로움, 차별대우, 지역주민의 냉대, 시부모나 남편의 학대, 폭력 등을 지적하는 연구들(박현정, 2004; 윤정숙, 임유경, 2004)이 있으나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여성을 심층 면접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상의 여러 문제를 분석하여 베트남여성의 한국사회와 가정생활적응을 돕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의식주와 일반적인 생활을 파악하여, 베트남과 우리나라 문화와의 동질성을 찾아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된 동기와 결혼과정을 파악하고, 국제결혼중매회사가 제공하는 결혼 전 남편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등을 파악한다. 베트남 부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남성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파악한다.

셋째,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살피고 베트남부인들이 한국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베트남의 사회 환경과 가정생활문화 특성

베트남인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마을단위의 공동체생활이 매우 익숙하다보니 베트남 여성이 외국남성과의 결혼은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1986년도 '도이 머이(doi moi)'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많은 국가와 교류하기 시작

하면서 배타적이던 심리는 호의적으로 변했다. 이국적인 가구나 옷차림, 식생활, 주생활 그리고 외국인 남편까지도 많은 여성의 꿈이 되었고,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는 많은 외국남성과 결혼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베트남과 한국은 지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계기로 특수한 관계가 맺어져 한국남성이 베트남여성 100여명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시작이었으나 1975년 이후 1992년까지 수교하지 않았으므로 국제결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2년 양국간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결혼도 재개 되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여성은 2000년도에 95명에서 점차로 증가하여 2005년에 결혼해온 베트남 여성만 5,822명으로 2004(2,462명)대비 증가율이 136.5%이다(통계청, 2006).

이처럼 베트남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해 오는 데는 한국 기업의 경제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결혼중매업체의 증가와 최근에는 일주일에 7-8편의 한국영화나 드라마가 방영됨으로써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환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베트남여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사회에 서서히 새로운 문화양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변화는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 등 자녀의 성장과 적응교육, 의식주생활 등의 풍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간에게 의식주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의식주생활과 기타 사회문화적인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자연환경적인 요인으로 친환경적 의식주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 북식은 여름철에는 긴 바지와 긴 소매 상의, 겨울철에는 가죽 잠바와 코트이다. 남부 호치민시는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찌는 듯한 열기를 막기 위해 긴장갑과 선글라스에 손수건으로 만든 삼각마스크를 하고 '논(non)'이라는 모자를 착용한다. 한국 전통의상이 있듯이 베트남 전통의상은 '아오자이(ao dai)'이다. 고등학생이 되면 여학생은 교복으로 흰색아오자이를 입는다. 화려한 아오자이는 공산화 직후 자본주의 색채가 짙다는 이유로 착용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여성들의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서 근무복이기도 하며 개방화 상징으로 착용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은 평상복, 외출복, 잠옷 등의 구별이 없이 집에서 입는 얇은 옷을 입은 채 집밖으로 나간다.

베트남 식생활문화는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부엌일을 도우면서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익히기 때문에 요리를 배우는 것이 힘들지는 않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한번만 보고도 똑같이 따라하지만 한국식으로 상차림이나 식사예절 등 식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쯤 걸린다(하밍타잉, 2005).

베트남 음식은 종류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쌀 국수(pho)는 가장 일반적이며 하루 2회 식사로 아침, 저녁 구분 없이 즐겨먹는다. 국수국물은 뼈다귀 우려 낸 국물이나 닭고기, 소고기 등 국물의 종류에 따라 국수의 명칭도 다르다. 반찬은 주로 생선(고기), 생채이며, 간장과 마늘, 고추도 먹으며, 긴 젓가락만 사용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식사하며, 성인남성은 한 끼 3공기 정도 먹는다. 대표적인 전통음식이자 설날음식은 '반쭙(banh chun)'으로서 우리나라 약밥처럼 찹쌀로 만든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신탕을 먹기도 하고 콩, 녹두 등을 갈아서 만든 '쎄'를 많이 먹는다. 팜을 많이 흘리므로 오렌지, 레몬, 코코넛 등의 주스나 '짜농(Tranong)'과 같은 전통차를 많이 마시므로 차 문화가 발달되어 손님이 방문하면 꼭 시원한 차를 내놓는다.(www.vietinfo.co.kr/culture/non.htm)

한국에 오기 전에 단 한번도 김치와 같은 매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없기에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며 처음에는 95%여성들이 맛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3년 이상이 된 부인들은 한국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질도 바뀌었고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하밍타잉, 2005).

베트남의 주거생활은 도시에는 아파트가 보급되어 한국과 유사하나 단독주택은 앞면은 좁고 뒤쪽으로 길어지는 가옥형태이다. 농촌지역은 거실과 방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거실에도 나무침상이 있고, 방바닥은 시멘트나 타일이며 나무로 만든 침대에 돛자리를 깔았고 얇은 이불을 덮는다. 거실 벽 중앙에는 조상신을 모시는 간단한 제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였으며 냉장고나 그릇장도 거실에 비치되고, TV도 설치되어 있다. 농촌지역 부엌용 LPG용 가스레인지가 있고, 냄비, 후라이팬이 벽에 걸려있으며 가전제품은 보이지 않았고 간이조리대는 있으나 식탁은 없었다. 이는 마치 한국 1960년대 초반의 농촌부엌과 흡사하게 바닥은 시멘트바닥이며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베트남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통인 유교와 불교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경일중에서 구정(음력 12월 31일부터 3-7일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혼연령은 농촌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 못하는 딸은 16세부터 결혼시키려는 부모가 많으며 결혼상대자와 연령차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베트남 신부들은 나이가 어리고 결혼 전 성생활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

이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성경험이 거의 없으며 남에게 성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성에 관한 지식을 거의 접하지 못한다(하밍타잉, 2005).

베트남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는 전통이 한국과 유사하다. 특히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농사일을 주로하며 살림을 이끌고, 결혼한 여성은 거의 맞벌이를 하고 경제권은 주부에게 있다. 하루일과는 오전 6시경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쯤 끝나 가정으로 돌아가며, 남자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오늘날의 베트남 문화는 외래문화와 민족문화, 공동체 문화와 개인문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유사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한국의 공통점은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가 지배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른을 공경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으며, 남편을 섬기는 전통예절이 한국과 비슷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며, 구정(음력 12월 31일부터 3-7일간)을 중요시 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점은 한국은 단일민족이며, 베트남은 여러 종족이 있다. 경제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농작물과 열대과일, 커피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도심에서는 남녀 모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이동 수단인 것을 볼 수 있다.

2. 베트남여성의 결혼동기 및 결혼과정

한국으로 결혼해온 베트남여성 중 총각과 결혼한 경우는 55%이고, 남편의 재혼상태로 결혼한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결혼해오는 부인들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인의 73%가 남편보다 10세 이상 연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하밍타잉(2005)에 의하면 80명의 베트남여성 중 총각과 결혼한 경우는 38.75%(31명), 재혼한 경우는 61.25%(49명)이었으나 베트남여성은 80명 전체가 초혼이다. 이처럼 외국여성을 신부 감으로 찾는 남성은 과거에는 국내에서 결혼상대자를 구하지 못하는 농촌총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재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나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특히 결혼중매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는 73%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설동훈 외, 2005).

베트남여성의 경우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 문제, 베트남 남성에 대해 싫증이 나서, 코리안 드림, 한류열풍의 영향, 사랑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

다(하밍타잉, 2005). 이처럼 베트남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와 한류열풍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해 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은 아는 사람의 소개(49.3%) 직접 만남(16.1%), 종교단체(15.6%), 결혼중개업체(13.4%)를 통한 4가지 방식으로 보였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대부분(94%)이 돈을 지불하였고,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45%)들도 돈을 지불하고 있어서 종교단체를 통한 결혼도 상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비용부담자는 절반정도가 남편이다(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중개업은 이윤이 많은 사업으로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1000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이 중 20-30%는 업자들의 수수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업체도 100여개 넘으며 오프라인 업체까지 합하면 수백 개가 된다(조선일보, 2005, 3 23).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결혼성사에만 급급해 배우자의 신상에 대해 부풀리거나 거짓말까지 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부실결혼을 양산하며 과대포장된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설동훈 외, 2005).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일에 불과하며 맞선을 보고 결혼식까지 5-6일로 매우 짧아 국제결혼이 처음부터 사람보다 조건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조선닷컴, 2005, 3, 21).

베트남여성의 국제결혼과정은 베트남중개업체 통한 1단계는 모집 후 수일에서 수개월간의 기숙생활, 2단계는 맞선과 결혼, 3단계 혼인신고 및 합숙교육, 4단계 한국생활 정착으로 이어진다(강복정, 2006). 결혼과정 2단계인 맞선은 한국남성 3-4인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100명 내지 150명의 여성을 맞선장소에서 소개시키며 선을 보인다. 남성1인이 15명에서 20명을 한꺼번에 선을 보이지만 재혼남인 경우는 혼자서 110명까지 맞선을 본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남성이 농촌 노총각이고 현지 여성이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한국남성들이 맘에 들어 하면 100% 성혼이 이루어진다(설동훈 외, 2005).

베트남여성은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가장 많이 결혼중개업체(55.4%)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준비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결혼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51.7%이며, 이 중 중국이 1,431건으로 전체의 58.6%이고 다음이 베트남 289건(11.8%)이다(통계청, 2006).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여성과 한국남성 결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여성의 다수가 매매혼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국남성과의 교체기간이 짧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고, 신부가 20세 초반으로 결혼준비과정 없이

결혼한다는 점이다.

한국남성들이 베트남여성과 결혼 동기는 언어 상의 문제가 있지만 외모가 한국여성과 흡사하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많고 농사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순수하고 착하여 한국남성이 마음을 정하면 쉽사리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동기는 경제적 문제, 한류열풍의 영향, 코리아 드림 등 잘 살아 보려고 한국남성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3. 베트남여성의 한국생활에서 문제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 가족원의 타문화에 대한 물이해로 인해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윤애, 2004). 특히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온 여성들은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식이 낮으며 자기발전적인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매사에 소극적이며 위축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채옥희, 홍달아기, 2006).

국제결혼이민자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소리치지 마라, 약속을 잘 지켜라,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 술을 조금만 먹어라, 대화를 많이 하자' 등이다(채옥희, 홍달아기, 2006).

한국남편만 믿고 의지하는데 언어소통이 안되어 답답함을 호소하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며 결혼한 이후 한국남편과 시댁의 습관, 문화에 일방적으로 맞추도록 요구받는다(하밍타잉, 2005). 한편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임신이나 출산, 자녀양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이들은 언어소통이 어렵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기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더욱이 산후조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베트남여성에게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총체적으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큰소리치는 것으로 들리는 남편의 대화방식에서 오는 문화적인 갈등과 외로움, 시부모나 남편의 학대 등이다. 베트남여성 자신들도 자아존중감이 낮고 정체성이 흔들리며, 결혼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코리아 드림을 안고 결혼해 오지만, 한국생활에 정착하기도 전에 임신, 출산을 하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대상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이 처해있는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연구자료 획득과정에서 통계적 대표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례별' 방식을 채택하였다.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양적 방법을 취하고 있어 베트남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생활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은 베트남여성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면접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면접은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도농 복합도시인 4개 면지역에서 대상자 20명을 면접 조사하였다. 면접시간은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는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여성을 통역자로 채택하였다. 면접내용은 사례자의 양해를 얻어 녹취하여 전사한 뒤 분석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의식주생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베트남여성의 농촌친정집 4곳을 베트남 현지 방문하여 일반적인 사회문

화와 의식주 및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자료화하였다.

베트남여성 면접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한국 의식주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인가' '어떻게 결혼해왔는지' '왜 한국남성을 남편으로 택했는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국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과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어머니나 남편면접이 가능한 7-8인을 통하여 결혼과정이나 비용 베트남여성을 선택한 이유, 가정생활상의 문제 등을 면접하였다.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위의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베트남부인들은 19세에서 24세가 가장 많고, 부부의 나이차이는 적게는 4세에서 가장 많은 33세 차이가 나며 평균적으로 18.5세 차이가 있다. 한국남성의 재혼은 3명이며 베트남여성은 1명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 시기는 1996년 1명이며, 2003년이 2명, 2004년 6명이며, 2005년 6명, 2006년 5명으로 2003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례대상자 1명을 제외하고 19명이 2003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으로서 결혼생활 지속 년 수가 3년 이하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자녀		결혼방법	학력		직업	거주지 / 배우자가족	입국 년 월
	부인	남편	남	여		부인	남편			
1	21	41	1		중매	고졸	고졸	축사시공	농촌	2005.10.
2	24	40			중매	고졸	고졸	용접공	농촌 / 시부	2006.02.
3	20	34			중매	중졸	고졸	농업	농촌 / 시부모, 임신중	2006.05
4	21	40		1	중매	고졸	고졸	트럭운전	도시, 아파트 / 시부모, 전처말, 남편재혼	2004.11.
5	20	36			중매	고졸	고졸	광택사	도시, 아파트 / 임신중	2006.04.
6	31	44	1		친구소개	고졸	고졸	농업	농촌, / 무인재혼	2003.05.
7	28	42	1		중매	고졸	고졸	농업	농촌 / 시부모	2004.03..
8	27	43	1	1	중매	대졸	고졸	농업	농촌	2003.04.
9	36	43	2		연애	고졸	고졸	농업	농촌	1996.04..
10	21	38			중매	고졸	초졸	농업	농촌 / 시부모	2006.08.
11	24	57			중매	중졸	초졸	농업	농촌 / 남편재혼	2006.08.
12	23	40			사촌소개	초졸	중졸	중장비	농촌 / 시모	2004.12.
13	19	37			중매	초졸	중졸	회사원	농촌 / 시모	2006.09.
14	21	34	1		중매	고졸	고졸	농업	농촌 / 시모	2005.01.
15	23	46		1	중매	중졸	고졸	운전기사	도시, 아파트	2005.12.
16	22	40	1		중매	중졸	고졸	농업	농촌 / 시부모	2004.02.
17	23	47			중매	초졸	고졸	농업	농촌 / 시모	2005.04.
18	24	54			중매	초졸	중졸	농업	농촌 / 남 3촌	2005.01.
19	24	28	1		중매	고졸	고졸	농업운영	도시 / 시부모	2004.01.
20	24	38	1		중매	고졸	고졸	회사	농촌 / 시부, 시숙, 동서, 조카	2004.04

남편의 직업은 농업이 11명, 회사원이 7명, 자영업인 농업이나 세차장을 운영하거나 축사를 건축하는 기술자는 각각 1명씩이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10명 가족이며, 시아버지와 큰 동서가족 등 대가족형태가 1가족이고,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2가족이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 가족은 5이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는 사례도 1명이다.

결혼형태는 대부분 결혼중매회사를 통하여 결혼하게 되었고, 1명은 베트남에서 10년 전에 한국남성과 연애 결혼하였으며, 1명은 이미 결혼 해 사는 언니소개로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1명은 친구소개로 결혼하게 되었다.

IV. 연구결과

1. 한국과 베트남 의식주생활과 사회문화의 유사점

베트남과 한국은 기후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나 어른을 공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것은 유사하다. 문화나 의식주 등 가정생활측면에서 몇 가지 유사점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생활

베트남의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들의 교복으로 주로 희색이 착용된다. 그러나 화려한 색상의 아오자이는 구정이나 행사 때 착용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착용하지 못한다.

사례 2의 신부를 비롯한 대다수의 부인은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옷 종류도 많이 필요한데 겨울철 옷값은 비싸고 신발도 샌들만 신었는데 한국에서는 샌들이나 구두, 부츠 등 계절에 맞게 신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사례 4, 12, 16의 신부들은 매일 옷을 바꾸어 입는 것에 대해 시어머니가 '어디를 나가려고 옷을 바꿔 입느냐'고 말하거나 '누구보라고 매일 바꾸어 입느냐'는 등의 질책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다.

사례 5와 10, 13, 19는 '베트남에서 가져온 옷이 너무 얇다고 시어머니가 입지 못하게 하며 새로운 옷으로 사 주셨다.'고 말하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지고 온 옷이 우리나라 잠옷 같은 것 같아 평상복이나 외출복으로는 입기 어려운 옷이다'고 한다.

사례의 대다수는 겨울은 추운데 옷값이 비싸다고 말하며, 베트남여성들도 한국 젊은 여성들처럼 평상복은 서양

문물의 확산으로 동일하지만 전통의상은 차이가 있다. 베트남은 기후가 덥기 때문에 옷을 매일 갈아입는 문화이고, 한국의 농촌생활은 더러워지지 않으면 갈아입지 않는 한국농촌문화 차이로 의생활에서 약간의 갈등을 겪는다.

2) 식생활

한국과 베트남은 주식인 쌀이라는 점은 같으나 한국은 하루 세끼 식사에 밥과 5가지 이상의 반찬을 먹지만, 베트남은 쌀밥이나 쌀 국수에 1~2가지 반찬으로 하루에 두끼 먹는 사람이 많고, 아침식사는 11시 전후이고 저녁은 7시 전후로 먹는다.

사례 1의 부인은 '지금도 음식 때문에 힘 든다.'고 말하면서 '입덧이 심할 때 베트남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다.'고 한다. 베트남의 '라운(참나물 비슷한 채소) 대신에 시금치를 기름에 볶아먹었다'라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아이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데 비해 '베트남에는 산후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먹는 음식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닭고기 국물에 미역국과 쌀밥이 산후조리음식으로 맛이 있었다.'고 한다.

사례 2는 한국음식은 베트남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아침식사를 너무 일찍 먹고, 점심 저녁 등 간식까지 많이 먹는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닭 국물과 돼지고기 국물을 이용해서 국수나 쌀밥을 먹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된장국, 돼지고기 김치찌개 등 콩나물국, 호박 국 등 국물이 다양하나 조미료를 사용하면 맛이 더 있다'고 하며 '친정에 조미료를 선물로 보낸다.'고 한다. '어린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많이 해서 인지 한국음식도 TV요리 채널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사례 3은 한국 도착 1개월 후 '임신으로 입덧이 심하여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한국음식 냄새 맞는 것조차 어려웠기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면서 '시부모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한다.

사례 9는 '이제 한국사람 다 되었다'고 김치, 된장, 고추장까지도 담근다. 베트남에서 맛내기 위해 먹는 젓국을 한국음식에도 '젓국을 사용하고 조미료를 첨가하면 맛이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남편이 음식에 대한 투정을 많이 해서 가지나 시금치, 무우 등을 후라이팬에 볶는 반찬을 하게 됨으로써 '맛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새로 오는 베트남신부들에게 식용유로 볶는 요리를 권하고 있다.

사례 12는 김치는 맵고 밥도 '맛이 없었으나 1년쯤 지나면서 식생활의 어려움이 없으며 김치도 담그고 시금치 나물이나 무우 줄임이나 생채도 잘 한다'고 자랑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에 비하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말하며 ‘자신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다’고 한다.

사례 19는 ‘시아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한국음식은 무엇이든 맛있다’고 말하며 ‘특히 불고기와 잡채, 김밥, 떡, 튀김이 맛있지만 자신은 만들 줄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입덧을 할 때는 베트남 과자가 그리워 친정집에서 보내왔다고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린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하였기 때문에 식생활에 쉽게 적응하지만 베트남 신부들은 한국에 도착하여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임신하게 되므로 식생활적응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베트남여성들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잡채와 불고기, 김치찌개, 김밥 등이며 친정으로 보내는 선물이 화확조미료이며, 조미료를 넣으면 맛이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한국의 60년대처럼 화확조미료를 선호하는 것 같다.

임신 시에는 베트남 음식이 그리워 닭이나 돼지고기국물에 국수를 먹으며, 3개월 정도 지나면, 식생활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한편 음식에 불만을 나타내는 가족을 위해서 식용유에 볶는 요리를 권하고 있다.

3) 주생활

사례의 대다수는 베트남의 주거생활보다 편리하고 좋다고 말하지만 사례 18는 ‘베트남보다 특별하게 나올 것이 없고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사례 9는 ‘처음에 왔을 때는 힘들었지만 농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였고 부엌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갖추어 편리하며 목욕탕 시설도 너무 좋다’고 만족해한다.

베트남의 주거환경보다 낡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례 18, 20을 제외한 사례의 대다수는 거실이나 냉장고, 전기 밥솥, 각종 그릇 등의 부엌시설과 목욕탕 시설이 아주 편리하다고 한다. 특히 사례 1, 3, 5, 7, 8, 19는 베트남 친정보다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만족해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현지방문 관찰에서 베트남의 농촌주거환경은 열악하고 부엌설비도 가스레인지와 냄비정도이고 작은 냉장고는 거실에 있으며 부엌에는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목욕탕 시설도 없으며 거실, 침실바닥이 시멘트로 열악함을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사례자의 대다수가 한국의 주거환경에는 만족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4)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문제

한국에 온 부인들은 한국남성중심의 한국말로만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나 가정생활 등 가계경제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채옥희외 3인(2006)).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현재 어떻게 살고 있으며, 경험하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정생활 중에서 가족과의 관계 및 가계경제 등 언어나 풍습 적응 노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2는 몸이 병약한 홀로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한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해보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친정에 도움을 줄 수도 없기에 ‘아이가 생길 때까지 취직해서 베트남친정에 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사례 6 남편은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일삼는다. ‘술을 먹지 않을 때는 너무 착하고 잘해주어 미워할 수가 없고, 베트남에 돌아가도 별다른 수도 없으며 아이나 잘 기르면서 살아야 한다.’고 체념 섞인 말투다.

사례 7 자신의 농사도 힘겨운데 토마토 재배를 아는 큰형님네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토마토 따는 일을 해주는데 ‘남들에게는 일당을 지불하면서 자신에게는 돈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말한다.

사례 10 한국남성에게 선택되어졌다는 것만으로 즐거웠으나, 남편은 한국말조차도 할 수 없는 언어장애자로 ‘농사철에만 일을 하며, 부모에 의지하며 생활하므로 미래가 걱정이다 그러나 시부모의 각별한 배려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남편에게도 자신이 배운 한국어를 가르치는 재미로 살고 있다’고 한다.

사례 15 부인은 ‘남편이 근무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오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남편은 부인이 너무 이해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느 날 회사동료들과 저녁회식 후 노래방에 다녀왔다는 말을 했더니 아내는 3일 동안 울면서 베트남 보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혼이 났다’고 한다.

사례 16 전화를 하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전화기도 빼앗고 큰소리하기에 외로움만 더 하였다’고 한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고향생각이 난다’고 하지만 2년 동안 친정에 가지도 못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칭찬뿐이다. 영리하고 예의바르고 근검절약하는 태도가 요즈음 여성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며느리 말은 ‘시아머니는 외출도 허락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만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사례 17 부인은 ‘친정이 어려워 매달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다’고 한다. 남편은 ‘잘 살면 돈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버섯재배가 잘되지 않았다’고 한탄한다.

사례 18 부인의 말은 ‘남편이 매사에 소극적이며, 술을 많이 먹고, 거주환경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친정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한숨 짓는다. 결혼을 위해 농협에서 대출 받은 이천만원을 갚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편은 뚜렷하게 할 일도 없이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일만하는 힘든 부인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한다.'고 수줍으면서도 화난 듯이 말한다.

사례 19 친정에다 전화도 가설해주고 통화도 자주하기에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으며 한국생활이 행복하고, 친정에서도 입덧하지 않도록 베트남의 과자나 말린 과일 등을 보내준다면서 조사자에게 권한다. 시집식구들의 보살핌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이 하는 한국말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고 있다.

사례 20부인은 '아이고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남편이 공장에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 할 곳도 없으며, 발농사를 하는 동서는 무섭다 라도 하는 것으로 보아 동서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다. 한국말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으로 보아 가족수가 많아서 듣고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생활이 꿈만 같다고 만족해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정에 돈 보내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가난한 남성, 일하고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 등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화적인 갈등, 며느리 칭찬을 하면서 외출도 시키지 않고 2년 동안 친정에 보내지 않는 냉정한 시부모, 동서의 시집살이를 겪는 여성, 남편의 술과 폭력, 언어장애 등이 가정생활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대처방안은 남편의 착한 모습만 생각하면서 참고 살거나 남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며, 친정에 돈을 보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등 한국생활적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결혼과정 및 결혼동기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된 과정에서 문제점은 주로 중개업체를 통한 방식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보건복지부, 2005)

본 연구의 국제결혼과정의 핵심은 어떻게 결혼해 왔는지, 왜 한국남성을 남편으로 택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국제결혼 성립방법으로서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 한국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 결혼비용, 맞선에서 결혼하여 한국까지 오게 된 기간 등 결혼 전에 남편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만남에서 결혼까지

결혼중매회사를 통해서 결혼한 17명 중 한국남성 3명

이 베트남에 도착하여 1박 후, 맞선장소에 갔을 때 한국남성 1명단 16명의 베트남 처녀들을 맞선볼 수 있었다.

사례 1의 남편은 도착당일 16명의 처녀와 맞선본 후 지금의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승낙을 받고,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1박 다녀 온 후, 처갓집에서 1박 후 다음날 대사관에 가서 서류 접수 후 본인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즉 5박 6일 만에 맞선과 결혼,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으며 대사관의 수속도 다 마치게 되었다. 부인은 2개월 후 결혼중매회사의 안내로 한국에 왔다.

한국남성이 재혼인 사례 4, 11, 18은 각각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3-4명의 한국 남성이 베트남에 갔는데 처녀가 100여명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돈이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어조이다. 재혼인 사례 11과 3혼째인 사례 18의 남편에게 부인의 나이와 너무 차이가나지 않는지는 질문에 '그곳에 나온 처녀 중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는 지금부인을 선택했다'고 한다.

사례 5, 10, 19는 부모님과 같이 베트남에 선보러 갔다. 이 중 사례 19의 남편은 첫날 100여명과 맞선을 보았으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어서 둘째 날에 돈을 더 지불하고 20여명의 처녀와 맞선을 본 후 결혼하게 되었다. 사례 5의 남편은 베트남에 어머니와 동행하여 맞선을 보았다. 처음에 20여명의 여성을 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어서 다음날 다시 맞선 후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으며 수속을 마치고 1주일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신부는 2달 후에 한국에 왔다. 사례 10은 아버지와 동행하여 며느리 선을 보아 결혼하게 되었다.

사례 12는 언니부부가 남편을 데리고 베트남에 와서 부모의 동의도 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중매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친구아내의 소개가 더 믿음직스러워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중매회사 보다 비용도 적게 들었다'고 한다. '처갓집에 더 많이 머물면서 애정도 쌓고 처가식구와 가까워 졌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이 결혼 중매회사를 통하여 결혼한 17명의 한국 남성들은 적게는 15명, 많게는 100여명을 맞선 보았고, 대부분 남성의 선택에 의해서 100%결혼이 성사되었다. 5-6일 사이에 맞선과 결혼,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랑은 즉시 귀국하고 신부는 2개월 후 한국에 도착하였다. 특히 시부모가 동행하여 선택해온 며느리들이 외모나 성격 등이 좋아보였고 한국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였다.

2) 결혼하게 된 배경과 동기

한국남성들은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적당한 취직자리도 없어 결혼하기가 어려워 혼기를 놓치게 됨으로

주변의 권유와 부모님의 성화에 결혼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베트남여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 부족, 결혼적령기의 여성부족, 한국여성과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 결혼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하밍타밍, 2005)

사례 1의 남편은 나이 40세가 넘어도 결혼을 못시켜 애태우는 '어머니의 성화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주변에서 착하고 근면, 성실한 베트남여성과 잘사는 친구를 보면서 결혼중매회사를 통하여 베트남여성을 소개해주기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사례 2부인은 베트남에서 '병약한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어서' 한국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어머니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병약한 아버지와 살다 보니 주변에서 '베트남처녀가 착하니 결혼하라'고 권유해서 결혼을 하였다.

사례 4의 부인은 '한국에 시집오면 경제적으로나 부모 간섭받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사례 5는 시어머니, 사례10은 시아버지, 사례 19는 시부모가 베트남 현지에 가서 며느리를 맞이해온 경우이다. 이들 부모들은 베트남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한 이유를 '나 이 어리고, 착하고, 예쁘고, 온순하고, 근검절약하며 한국의 60년대 가치관을 가졌다고 하기에 베트남여성으로 정했다'면서 만족해하고 있다.

사례 9 부인은 베트남에서 회자동료를 만난 남편이 더 없이 믿음직스러웠다. 10년전 만 해도 베트남의 젊은 남자들은 '왕자 병'에 걸려서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보였는데 한국남성인 '남편의 근면,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고 한다. 남편도 '아내가 예쁘고 날씬하고 근검절약 하는 태도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반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한다.

사례 11 부인의 말은 '베트남 남성은 책임감이 적고, 열악한 경제생활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잘살아보려는 꿈을 안고 한국으로 시집왔다'고 한다. 남편이 재혼이며 나이차이가 너무 많지 않으나 질문에 부인은 '아버지같이 믿음직스럽다'고 한다.

한국남성이 베트남여성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1960년대 여성들처럼 수수하고 열심히 일하며, 근검절약하며 살아가는 주변의 베트남 여성들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여성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잘살아보려고 한국남성에게 시집오기를 희망했고, TV를 보면서 한국남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공주처럼 모시며 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한류열풍이 작용한 것 같다.

3) 결혼비용

결혼중매회사를 통해서 결혼하기까지 베트남 여성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나 한국 남성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의 비용을 중매회사에 지불하고, 처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처가에 준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례 1의 남편은 중매회사에 1000만원을 주었고, 신부집의 경제수준이 열악해서 '100만원과 소한 마라도 사주었다'고 한다. 베트남 신부가 말하는 결혼중매회사는 '친정집에 돈을 주지도 않았으며 자신도 중매회사에 돈을 주지 않았고 현지모집책인 아는 사람의 소개로 중매회사가 마련한 호텔에서 합숙하면서 맞선을 보았다'고 한다.

사례 2 부인도 베트남 중매인에 의해 모집되어 합숙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하루에 목표한 단어를 다 외우지 못하면 매를 들고 무섭게 하므로 베트남에서 한국어 사전을 준비하여 공부를 했다고' 한다. 남편도 결혼중매회사에 모두 1,200만원을 주었다. 한국에서 중매회사와 '계약당시 200만원을 주었고 맞선보러가면서 400만원을 지불했고 부인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600만원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장인의 병원 입원비 때문에 100만원정도 처가에 주었다.

사례 6 남편은 친구 따라 베트남에 가서 맞선을 보고 친구의 처가에 머무르면서 신부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으며 결혼 일주일후에 본인은 돌아오고 신부는 소개한 부인과 2개월 후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친구내외의 베트남 왕복항공료와 처가에 준돈을 합하면 1,000만원정도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지불하는 비용이다'고 한다.

사례 12 남편은 '모든 결혼비용을 지불하였고, 처가에 200만 원 이상을 주었으므로 1,000만원정도는 들었다'고 한다. 남편은 '베트남으로 결혼하기위해서 동반하는 친구 부부의 왕복 여비는 결혼당사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사례 15 남편은 결혼하기위해 농협에서 2000만원 빚을 내어 베트남 처녀와 결혼했으나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푸념이다.

베트남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만남에서 결혼, 신혼여행까지 5박6일정도이며, 신부가 한국으로 오는 시기는 신랑이 한국으로 온 후 2개월 후에 한국에서 신랑이 다시 베트남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혼중매회사에서 신부를 데리고 온다.

이들 남편은 노동력이 없거나 부모에 의지하여 살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서 실망감이 커질 우려가 있어 많은 지원 망이 요구된다.

4) 결혼 전 남편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중매업체에 맡기고 통역자의 설명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부라고 말하기에 당사자 부부나 시부모 말을 들었다.

사례 1 부인은 '남편이 축산업을 한다기에 넓은 농장 일출 알았는데 와서 보니 소 2마리이고 남의 축사를 지어주는 기술자'이다. 그러나 '남편의 근면, 성실함이 무엇보다 만족스럽다'고 한다. 남편의 말은 '축산업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다만 신부가 안전하고 예뻐서 선택했다'고 한다.

사례 4 부인은 '남편이 재혼인줄도 모르고 한국시대에 와서 보니 천처소생의 딸아이가 하나있고, 시부모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재혼이라고 말했는데 중매업자가 속인 것 같다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부인이 고집도 세고, 사고 싶은 것 모두 구매하려고 공주대접 받으려는 것 같아서 뜻받아주기가 무척 힘 든다.'고 하면서 '자신이 부인복이 없는 사내이려니'하는 말로 보아 체념 섞인 하소연이다.

사례 6 부인은 친구 소개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하며 폭행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고 한다. 소개한 친구도 평소에는 점잖은 남편친구가 술을 마시면 폭행하는 줄 몰랐다고 하지만 시부모들은 '결혼을 시키면 좋아질 것 같아서 결혼을 권유했으나 며느리만 고달프게 만들어 마음이 아프다'고 진실을 말한다.

사례 10부인은 '순하고 말이 없는 남성인줄 알았고, 멋있어 보였으며 시아버지가 친정집에 돈도 많이 주어 큰 부자 인줄 알았다'고 한다. 자가용차는 있지만 큰 부자는 아닌 것 같다. 시아버지는 '중매업자에게 아들이 성장하면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며느리를 속이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사례 14 부인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 기계가 다하니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넓은 들판을 연상했다. 그러나 '남편의 논은 적고, 남편의 형 농사인데도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밭농사를 하느라 쉬는 날이 없다'고 한다. 남편도 '베트남 농촌처녀들은 일도 잘 하고 시어머니 잘 모신다고 하더니만 고집만 세고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만 한다.'고 불만이다.

이들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남성들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신부를 속이려하는 것보다는 통역 상의 문제나 중매회사에서 결혼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한국남성에 대해서 허위로 과대 포장하는 것 같다. 한편 베트남여성들은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으로 시집오게 되는 것만 행운으로 여기며 남편과의 나이차이나 학력, 직업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

1) 농업에 종사하는 힘든 여성

베트남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며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남성에게 결혼해 온다.

사례 6은 한시도 쉴 날이 없이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남편도 일하다가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힘 든다.'고 한다.

사례 7도 비닐하우스까지 하므로 일년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는 날이 없다. '쉬는 날이면 손위동서 일까지 하지만 돈은 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은행에 가본 일도 없고 자신의 돈도 없다'고 불평이다.

사례 9는 처음에는 '가정과 지역사회나 시집식구의 냉대 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힘들었고, 지금도 한국말은 할 수 있으나 한글은 모른다.'면서, '아이를 낳고 기를 때도 힘들었다.'고 하며 지금도 열심히 논 밭농사는 물론이고 소를 기른다고 한다. 결혼 10년이 된 현재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하므로 '베트남 친정을 위해 선물과 돈도 정기적으로 보내며, 근래에는 베트남처녀들을 5명이나 한국총각에게 중매했다'고 한다.

사례 14도 '논농사는 남편이 하고 밭일을 하는 시어머니는 항상 일하기를 바라며, 하루 3끼 식사 외에 간식까지도 자신에게만 시키며 청소와 빨래도 자신의 몫이므로 아이를 등에 업고 일 할 때가 많다'고 푸념이다.

사례 16은 일하는 것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50년대의 한국여성같이 보였다. '하루 종일 놀면 무엇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베트남친정에도 갈 수 있고 친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도 말 한다. 사례 17도 버섯 재배하는 남편을 돕기도 하고 시어머니 밭일도 같이하여 '부자가 되면 친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 한다.

사례 18은 남편은 자신에게만 농사일을 맡기고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므로 가난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한다. 사례 20부인은 손위동서는 농사일에 전념이고 자신은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이를 등에 업고 하루 종일 일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다.

이상과 같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은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며, 남편의 돈 버는 능력이 부족한 가난한 집에 시집온 여성은 베트남의 경제수준만큼 안되고 오히려 더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 실망감도 크게 느낀다. 그러나 일해야 친정을 도울 수 있거나, 친정이라도 다녀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2) 할일 없어 무료한 여성

한국에 온지 6개월 이하의 베트남부인은 방향감각도 없고 한국어도 모르기에 바깥출도 못하고 남편이 직장 에 나가면 하루 종일 혼자서 집을 지키며 오는 전화도 받지 못한다. 이웃사람들과도 말을 못하기에 어울릴 수도 없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외롭고 무섭다고 한다.

사례 1은 농촌 외딴주택에서 살기에 '혼자 있을 때는 무섭고 한국말을 못하니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못하여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 한다.

사례 2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하루 종일 무료하게 보내는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자신도 취업하기를 원한다.

사례 3, 5부인들은 임신 중이며, 아이를 낳기 전에 한국말을 배워야한다면 한국생활의 즐거움은 'TV시청과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고, 한국요리를 배우는 것이 희망이다'고 한다.

사례 4는 전처의 딸이 있고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다 하므로 자신은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집에 있기가 무료하여 자주 외출하지만 어려움은 더 하다'고 한다.

사례 8부인은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면서 생활을 할 때, 장가 못간 남편친구에게 베트남신부를 3명 중매하여 '친정집에도 3번이나 다녀왔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할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례 11부인은 하루가 지루하여 공장에 가고 싶은 데 가지도 못하고 '남편이 할일이 없으므로 어디를 가나 항상 자신만 따라다니 불편할 때가 많다'고 한다.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사례 4, 5, 15는 '하루 종일 TV와 같이 한다'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고 말하며 '때로는 외롭기도 하여 한국 요리도 배우고 한국말을 잘하여 취직하고 싶다'고 한다.

할일 없이 지내는 여성들도 할일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좋은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가 되지 않는 부인들은 한국어공부가 가장 하고 싶고, 한국요리를 배우고 취미활동도 하고 취직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지속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국제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망

1) 가족들의 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농촌총각들의 반려자이며 우리아 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미래의 농촌을 지키는 역군으로서

재생산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주변에서 외면하는 사이에 이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문화적인 갈등을 겪으며, 남편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 사이에 많은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사례 1, 2, 3부인들은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서 가사 일을 도와주며 가족이나 친척들의 모임에서도 자신들이 언어가 안 되므로 많은 배려를 한다.'고 말한다.

사례 1과 3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으로 입덧이 심하여 남편과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사례 4부인은 '전처소생의 딸을 보면 화가 났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자신이 아이를 낳은 후 그 아이도 귀여워졌다'고 한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확실한 지원을 받는 사례 5와 19는 한국생활에서 '자신의 꿈이 실현된 것 같다'면서 '매달 예금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있으며, 친정에 10만원정도 송금을 한다.'면서 행복해 한다.

사례 6은 시부모와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사례 10은 남편과 '대화는 통하지 않으나 시부모가 너무나 잘해주어 생활에는 불편이 없으며 핸드폰도 사주었다'고 자랑이다. 사례 11은 전처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돕고 있으며, 시집간 딸과 아들이 1개월에 2-3회씩 번갈아가면서 방문하여 '살림살이도 가르쳐주고, 식품재료도 구매해오고, 시내에도 나가서 옷과 신발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준다'고 자랑이다.

사례 13은 한국어가 되지 않아 고통스럽지만 시어머니와 시집간 시누이가 '옷과 용돈을 잘 주고 핸드폰도 사주었다'고 자랑이다.

사례 19 신부에게는 시부모와 남편이 확실한 지원자이다. '베트남 친정에 전화도 놓아주고 피아노도 배우며 한국이름도 지어주고, 예쁜 옷도 잘 사 주신다'고 한다.

가족들은 베트남여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지원 망으로서 그들의 한국생활적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나이 어린 신부들은 핸드폰 갖는 것도 자랑으로 여기며 친정을 돕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는 나이 어린 신부를 외부세계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국어 교실에도 보내지 않는 가족도 많이 있다.

2) 이웃과 친구의 지원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이웃이나 친척들과의 교류는 적은 것 같다.

사례 1도 임신과 출산 시에 '베트남 친구가 많이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특히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끼리 '음식도 만들고 서로를 위로하며 전화도 하면서 어려

움을 해결하고, 임신 중인 사례3과 5에 많은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례 2, 4, 5, 12, 15는 자기들끼리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한달에 5천 원씩 거출하고 은행에도 간다.'고 한다.

사례 2는 시누이가 매달 '용돈도 주고 옷도 보내온다.'고 자랑이고, '시어모가 가끔 반찬이나 채소, 고기 등의 식품재료를 가져다주며,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 주고 김치도 담가주기에 생활의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사례 10은 이웃사람들이 '멀쩡한 색시가 왜 병어리한테 시집왔나, 잘 살지 몰라' 등의 말을 하기에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한다. 사례 11은 이웃사람들이 '왜 나이든 사람에게 시집왔느냐. 얼마나 어렵기에 이런 시골에 팔려왔느냐' 등 너무나 이상한 말들을 하기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

친척이나 이웃은 가족다음으로 이주여성들에게 지원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을 비하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는 그들의 가슴에 슬픔을 주며 한국생활적응을 더 어렵게 하므로 이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친척이나 친구, 이웃은 서로에게 생활의 정보를 주며, 베트남여성들은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지원

농촌지역은 노인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젊은 사람들이 적고 아이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골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러나 노총각의 국제결혼으로 활기를 찾는 지역이 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교육하는 곳은 많지 않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나 각 시군 면단위의 주민자치센터, 초등학교가 이들을 위한 사회지원 망이 되어 한국어교육과 가정생활 및 사회문화적응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만 하더라도 300여명의 국제결혼이민자가 있으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성은 6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도 거리가 멀기에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에서 4지역으로 파견 나가 교육하는 실정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례 1, 2, 3, 7, 12, 14는 주민자치센터까지 가는데 걸어서 1시간이상을 가야하고 버스노선도 하루에 1-2회 정도라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타는 시간 등을 합하면 하루 종일 한국어공부에 소비하므로 '시어머니는 공부하러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들의 '시어머니나 남편들이 외출을 막는다.'고 말한다.

사례 4, 10, 11, 13, 15는 추운 날씨에는 '꼼짝하기도

싫고, 나가면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한국어공부도 힘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어공부시간에 하루라도 결석하면 뒤지는 것 같고 자신들의 지지자이 되어준 친정어머니이며 한국어강사가 보고 싶기도 하여 일주일에 2번하는 공부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희망도 말한다.

사례 16, 17, 18, 19는 한국어교실에도 나오지 않는다. 사례 16은 '거리도 멀지만 시아버지가 가르친다.'고 하며, 사례 17은 '일속에 묻혀 사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사례 18은 남편의 '불성실함에 공부할 의욕을 잃었다'고 한다. 사례 19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많은 대화를 하며 대학생을 채용하여 친구 겸 한국어공부를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도나 시단위에서 국제결혼여성을 위한 문화체험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남편은 참여하지 않으며, 시어머니도 싫어하지만 문화체험은 베트남 신부들은 '자신들의 답답한 숨통을 트여주는 것 같아서 즐겁다'고 말한다. 특히 사례 4, 10, 11은 문화행사 때마다 남편과 같이 참여하여 남편과 동화하려고 노력한다. 사례 1, 3, 5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임신출산을 위한 '베트남어 책자'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례 4의 남편은 '아내는 매일 아이를 안고 한국어공부와 다른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10월 달은 가정살림은 뒷전이다'고 불만이다.

지역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은 한국어교육이 기본이며,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하여 남편과 시어머니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컴퓨터나 직업교육, 한국요리나 취미교실 등 다문화 생활교육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기관에서 1회성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국가나 지역사회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전북 도.농 복합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여성들의 결혼과정과 가정생활실태를 살펴 한국사회와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베트남과 한국의 공통점은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가치관의 저변에 깔려있어 어른을 공경하고, 구정을 중요시 한다. 의생활은 베트남은 평상복과 외출복, 잠옷 등의 구별이 확연치 않다. 식생활은 베트남은 1일 2끼의 식사를 하므로 3끼 식사를 하는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다.

둘째, 결혼과정은 대다수가 중매 혼으로 5-6일안에 만

남과 결혼, 신혼여행이 이루어진다. 결혼 동기는 한국남성은 베트남여성이 순수하고 열심히 일하며, 근검절약하기 때문이고, 베트남여성은 한국남성이 믿음직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피하고,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한 경우로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많으나 나이 어린 신부들은 한류열풍도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농촌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과 생활환경에 실망하는 여성들이 상당수가 있으며, 이들 중 생계를 위해 직업을 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결혼비용은 대부분 남성이 담당하고 1000-1200만원정도이며, 결혼 전 남편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속였다기보다는 중매회사인 통역자가 한국남성을 허위로 과대포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정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한국말을 할 수 없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며 가난하고, 집에만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며, 나이 어린 신부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하여 입덧이 심한 경우이다.

넷째, 한국생활에서 힘들게 노동하면서 친정에 돈도 보내고, 친정 가는 날만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 있는가하면 한국말을 모르기에 이웃과 어울리거나 전화도 받을 수 없으며 사회생활을 못하므로 무료해하는 여성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여성들의 노력도 절대 필요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지지가 중요하다. 한편 이웃이나 친척, 친구들도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자조집단이 형성되는 지지자이며, 지역사회는 계속적으로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가정생활교육 및 다문화체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한국어교육을 적어도 500시간이상 수료자에게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어교실에 나오지 않는 여성들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결혼이민자, 국제결혼, 베트남 신부

참 고 문 헌

강복정(2006), 국내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점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역할, 한국 가정관리학회, 결혼이민자

가족지도 실무자 양성 워크숍, 자료집.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창립3주년기념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7-48.

박현정(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여성결혼이민자 실태보고 및 토론회자료,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3-34.

박재규, 이운애(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전북발전연구원.

보건복지부(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이운애(2004), 전북지역의국인 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윤정숙, 임유경(2004), 성별화 된 이주방식으로서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설동훈외 8인(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조선닷컴(2005, 3, 21)

조선일보(2005, 3, 23)

채옥희, 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교육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0(3).

채옥희, 홍달아기, 김정훈, 이남주(2006), 국제결혼가족의 가정생활과 적응전략,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하명타잉(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16.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를 통해서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전북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2006), 전북. 충남지역 해외이주결혼가정을 위한 RHRD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북. 충남인적자원개발센터.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통계결과.

www.vietinfo.co.kr/culture/ao.htm

(2006. 07. 28 접수; 2007. 01. 10 채택)